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배드민턴 비국대 출전 제한 폐지”

배드민턴 협회장 ‘페이백’ 의혹엔 ‘횡령 배임 가능성’ 언급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명령에 복종” 규정도 폐지 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성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 대

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임무로 ‘초내의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회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을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 라켓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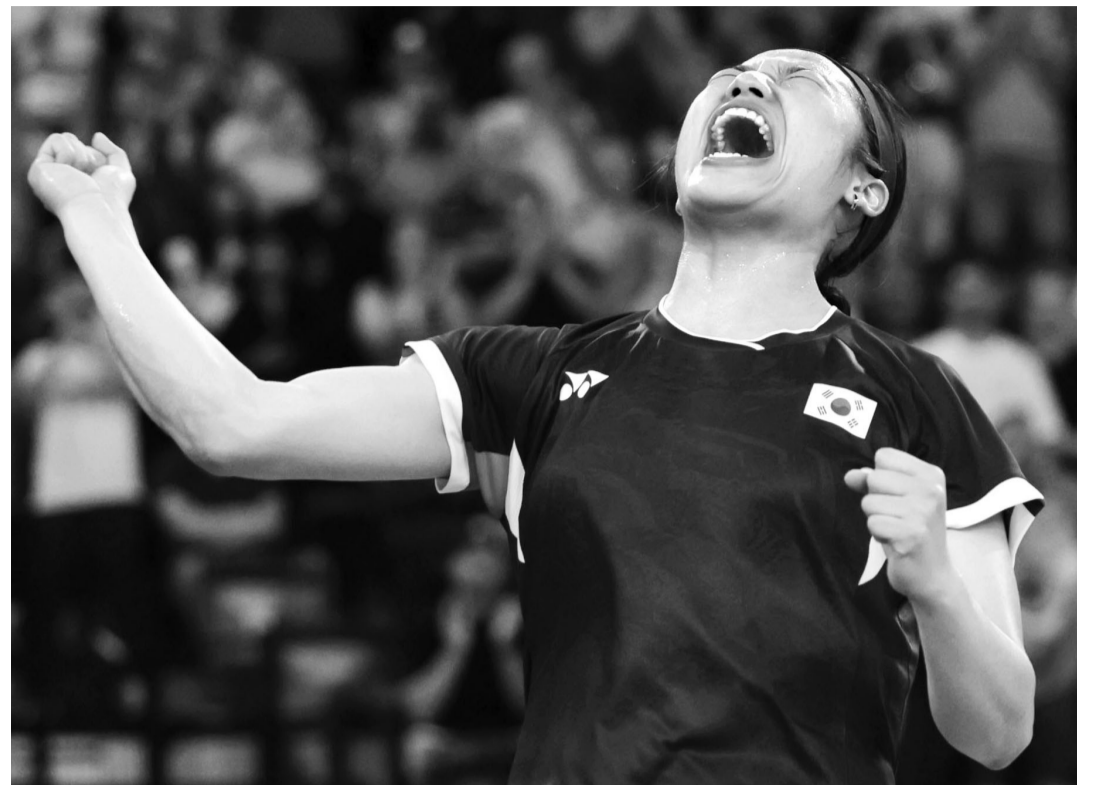
문체부는 협회가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



이정우 체육국장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해 중언발표를 하고 있다.

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4강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인도네시아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을 상대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청,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2연패

인천시청에 3-2 승

무안군청 검도팀이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전남 유일 실업 검도팀 무안군청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1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무안군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23개 팀(남자16, 여자7개 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무안군청은 대회 남자 단체전 16강에서 충남체육회를 상대로 3-2로 꺾고, 8강에서 용인시청에 2-1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에서 수원시청을 만나 2-2 동점, 한 포인트 차 승리로 결승에 오른 무안군청은 인천시청을 3-2로 꺾으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추계대회에서도 단체전 정상에 올랐던 무안군청은 이번 승리로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주장 유하늘이 6단부에 출전해 동메달을 더했다.



제21회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을 차지한 무안군청 검도팀. 왼쪽 위부터 손인준, 이광철 감독, 김한범, 이후성, 유하늘, 김병호, 양동관, 정경인, 임동영. <전남도체육회 제공>

코치 시절부터 23년간 무안군청을 이끌어 온 이광철 감독은 “최선을 다해 기량을 발휘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열심히 훈련해 오는 10월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장애인력비팀 전용 훈련장 생겼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

전남장애인력비팀을 위한 전용 훈련장이 마련됐다.

전남장애인력비팀은 최근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복지관 내 체육시설을 전용 훈련시설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창단된 전남장애인력비팀은 2020년까지 전남장애인체육회의 관리체제에 속해있었다. 이후 2021년 전남장애인력비협회가 꾸러지면서 사단 법인으로 자리잡았다.

그간 전용 훈련장이 없던 전남장애인력비팀은 1년마다 목포장애인체육관, 무안스포츠파크 등 체육 시설을 옮겨다니며 고군분투했다.

장애인력비는 척추나 허반신 마비 장애인들이력비 전용 휠체어를 타고 4대4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으로, 훈련과 경기를 위해 실내체육공간이 필요하지만 팀 창단 8년 동안 마땅한 훈련 장소가 없었다.

열악한 훈련 상황을 접한 김경표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나주 소재의 복지관 내 체육관을 무상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표 관장은 “장애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훈련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안타까웠다.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장애인력비팀은 지난 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력비단체 2위, 혼성 휠체어력비 오픈 부문 3위 등 꾸준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 경남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동호인부문으로 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도장애인력비협회에는 지난 2023년까지 퀼드(전문 체육인)와 오픈(동호인) 부문에서 약 15명의 선수단이 있었으나, 현재 7명 남짓의 젊은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청, 전국실업단육상대회서 금빛 레이스

남자계주·여자 100m 금

광주시청 육상팀이 10일 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KTFL 전국실업단육상경기대회’에서 활약을 펼쳤다.

광주시청 김국영·이재성·강의빈·김태효는 남자 400m 계주 우승을 합작했다.

이들은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39초28에 레이스를 끝내면서 2위 서천군청(39초98), 3위 안양시청(40초65)을 제치고 정상에 차지했다.

여자 100m에서는 광주시청 강다슬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강다슬은 여자 100m 예선2조 경기에서 12초10으로 1위에 오른 뒤 결승에서 11초84를 기록하며

이현희(안동시청·11초85), 김다정(안동시청·12초08)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재성은 남자 100m에서 10초3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현진은 여자 10000m 달리기에서 35분46초25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12일까지 이어지며, 11일에는 고승환이 남자 200m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다가오는 체전을 앞두고 이번 대회를 통해 기량을 점검했다. 남은 기간 부상 등 선수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며 105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페퍼스, 첫 경기 상대는 한국도로공사

10월 22일 원정서 첫 일정 소화 V리그 일정 공개...19일 개막전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10월 22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024-2025시즌 첫승에 도전한다.

한국배구연맹이 10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일정을 공개했다.

페퍼스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7시 한국도로공사의 안방인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원정 경기로 첫 일정을 소화한다. 페퍼스의 첫 홈경기는 10월 25일 오후 7시 정관장과 치르게 된다.

V리그 여자부 개막전은 10월 19일 지난해 통합 우승팀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대결로 펼쳐진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는 2025년 3월 20일까지 6라운드로 진행되며, 총 126경기 열린다. 주중에는 휴식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되며, 주말에는 오후 4시 경기가 열린다.

포스트시즌은 2025년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이어진다.

리그 개막에 앞서 미리 실력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1일부터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가 시작된다.

페퍼스는 29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컵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대회는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각 구단들은 V리그 개막 전 컵대회를 통해 전력을 탐색하고 훈련의 성과를 확인한다.

한편 정규리그 남자부 첫 경기는 10월 19일 지난 시즌 통합 우승에 빛나는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의 대결로 치러진다.

이에 앞서 남자부 컵대회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